

부모애착표상과 가족 건강성이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박윤경*

김미경**

논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기독교 대학 재학생 359명이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은 신앙성숙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부모애착표상은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은 신앙성숙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성숙을 위해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017년 1월 30일 접수, 3월 20일 최종수정, 4월 27일 게재확정

I. 서론

오늘날 한국은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결혼관의 변화로 인해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0쌍 이상이 경제, 폭력, 외도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있다(통계청, 2016).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국가 중 9위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1위에 해당되는(박선영, 2015) 수치로 이혼으로 인한 한국가정의 붕괴를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이혼율의 증가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자녀방임과 학대, 그리고 살해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가족갈등과 이혼 등 건강하지 못한 가족사가 함께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최초의 환경이 가정이며, 자녀는 부모들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형성되지만 가족생활과 가족기능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정적인 문제행동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들(김진원, 엄명용, 2014; 박미희, 2013; 유영주 외, 2009)을 통해 밝혀졌다. 가족 건강성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유영주 외, 2009),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체계를 잘 유지해 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유영주, 1994; 유계숙, 2004). 박미희(2013)도 건강한 가족은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원간의 유대감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문제나 위기상황에서 문제해결수행능력이 높으며, 가족원간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므로써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화된 가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유대를 도모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조아라, 2008) 사회 심리적, 관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한영숙, 2006), 심리적 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가정으로 애착표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갖는 부모를 기반으로 한다.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의미는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며,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어 가족의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위중희, 2012). 특히 자신의 가족을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데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윤연정, 2007). 생애초기부터 부모와 맺는 애착관계는 한 사람의 전 생애를 통해 삶의 질과 발달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조순옥 외, 2013). 애착은 자녀와 부모가 맺는 정서적 유대관계이자 애정적인 결속으로(Bowlby, 1958; 정옥분 외, 2009) 부모는 애착과정을 통해 자녀의 안전기반이 되고 자녀는 이를 토대로 세상을 탐색한다.

애착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근접성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행동과정(Bowlby, 1969; 1980)으로 정서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애착표상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하고 경험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애착과 부정적인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임경수, 2013). 많은 연구들(이승진 · 이인수, 2015; 박소현, 2006; 장휘숙, 2004)도 가족건강성과 부모애착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휘숙(2004)과 Fonagy와 그의 동료들(1991)에 의하면 애착은 부모-자녀 관계는 물론 친구관계, 이성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고,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양식과 병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이처럼 애착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패턴이 되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박소현, 2006) 종교적 경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문경, 2014). 이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전환할 동기를 이루기 때문에 부모애착표상이 신앙성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심리적인 중간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위기와 고난가운데서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삼고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다. 김경희(2015)는 신앙성숙을 올바른 신앙의 내용에 대한 앎과 그 앎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삶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므로 신앙적 성숙은 부모와 가정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이해주, 2015; 이문경, 2014). 신앙은 자신을 돌보아주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최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며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신뢰의 경험을 통해 성장되어간다. Colson과 Rigdon(1981)에 따르면 기독교적 신앙인격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교육의장은 가정이며 부모와 신뢰적인 애착관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장시킨다.

가정은 성격과 인격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장소로,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을 지탱해

주는 신념 및 가치관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기독교적 신념이나 신앙은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며 그들의 삶을 묶어주고 지탱해 주는 힘으로 가족의 건강성은 부모의 애착표상과 신앙성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난예, 2012). 부모와의 애착은 하나님 이미지, 신앙성숙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조운영, 2015), 부모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민주적 의사소통과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건강한 가족이 형성된다(김난예, 2012). 김은실(2005)은 신앙성숙도를 교리적 측면, 신앙적 측면, 인격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교리적 측면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신앙적 측면은 자신의 신앙 행동과 비양심적 또는 모범적인 종교인에 대한 느낌, 그리고 인격적 측면은 교회생활 및 사회생활 모습을 통해서 종교인의 삶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함영주(2013)는 아동기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이후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동기의 불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이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성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안정적 애착관계를 맺게 하기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동기 때 부모와의 애착과 하나님 이미지, 개념 형성, 그리고 영성 발달 및 신앙생활 관련연구들(임영민, 2011; 조운영, 2015; 함영주, 2013)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족건강성과 관련해서는 신앙보다는 주로 결혼관이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송인숙 외, 2013; 조은수, 2007)이 이루어졌다. 부모애착과 신앙성숙도에 관한 선행연구(조운영, 2015)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성하는 애착의 속성이 서로 다름(김리진 외, 2014)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첫째, 신앙관련 연구들은 주로 신앙발달과 가정의 신앙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 신앙발달과 가정의 교육과 같은 요인들이 신앙발달 및 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실증적 자료들을 제공해 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애착 및 가족건강성 변인들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신앙성숙도를 밝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의 아동기 때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애착표상을 부 애착표상과 모 애착표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하위요인들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와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아버지/어머니)애착 표상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아버지/어머니)애착 표상, 가족건강성, 그리고 신앙성숙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아버지/어머니)애착 표상과 가족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은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모애착표상과 가족 건강성이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기독교 대학 2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 대학생은 총 359명이다. 양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을 보기 위해 회수된 설문지 중 한쪽 부모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343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1>과 같다.

		빈도	%
연령	10대	99	(28.9)
	20대	234	(68.2)
	30세 이상	10	(2.9)
형제서열	첫째	176	(53.2)
	둘째	124	(37.5)
	셋째	18	(5.4)
	기타	13	(3.9)
어머니 직업	유	209	(62.6)
	무	125	(37.4)

		빈도	%
아버지 종교	기독교	279	(82.8)
	천주교	5	(1.5)
	불교	2	(0.6)
	종교없음	51	(15.1)
어머니 종교	기독교	318	(94.4)
	천주교	4	(1.2)
	불교	1	(0.3)
	종교없음	14	(4.2)
아버지 교육	고등학교 졸업	76	(23.0)
	대학교 졸업	147	(44.4)
	대학원 졸업	108	(32.6)
어머니 교육	고등학교 졸업	123	(36.9)
	대학교 졸업	175	(52.6)
	대학원 졸업	35	(10.5)
전체		343	(100.0)

〈표1〉 기독교 대학생들의 일반적 배경

2. 연구도구

(1) 부모애착표상

부모에 대한 아동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92)가 제작한 성인애착 측정도구(Adult Attachment Scale)를 곽소현(2006)이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 7점 Likert 척도인 것을 이정미(2015)가 5점 척도로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아버지 애착표상 16문항과 어머니 애착표상 16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방식은 Likert의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들은 역 채점 한 뒤 합산하였다. 본 부모애착표상 척도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부애착 Cronbach’s $\alpha=.860$, 모애착은 Cronbach’s $\alpha=.861$, 그리고 전체 Cronbach’s $\alpha=.903$ 으로 높게 나타났다.

(2) 가족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작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한영숙(2006)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에 관한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의 가치체계공유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34문항이다. 응답방식은 Likert의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가족건강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77로 높게 나타났다.

(3) 신앙성숙도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Basset과 그의 동료(1981)들이 제작한 ‘기독교인 신앙성숙도 척도(The Shepherd Scale)’를 김연진(1994)이 우리 실정에 맞게 변안하고, 교리적, 신앙적, 인격적 측면으로 김은실(2006)이 재작성한 것을 김유경(201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문항 등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Likert의 5점 평정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이 성숙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신앙성숙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6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지의 내용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애착표상 32문항, 가족건강성 34문항, 신앙성숙도 42문항으로 총108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에 관한 설문지의 신뢰도는 부모애착표상 .903, 가족건강성 .977, 신앙성숙도 .956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69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사 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영역, 내용 및 신뢰도는 <표2>와 같다.

변인	하위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부모애착표상	부 애착	16	.860
	모 애착	16	.861
	부모애착표상 전체	총 32	.903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10	.94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	.908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6	.852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9	.910
	가족건강성 전체	총 34	.977
신앙성숙도	교리적 측면	14	.950
	신앙적 측면	14	.888
	인격적 측면	14	.891
	신앙성숙도 전체	총 42	.956
전체	합계	총 108	.969

〈표2〉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 설문지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1) 설문조사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기독교 대학 2곳에 재학중인 대학생 3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4월 1주부터 2주까지 총 2주간 수업시간에 직접 배부, 회수(회수율 100%)하였다. 회수한 359부 중에서 부모애착 도구에 한쪽 부모만 응답한 16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4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설문지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 애착표상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그리고 신앙성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건강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아버지/어머니)애착표상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에 차이가 있는가?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 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하고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부모 애착표상이 하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평균 3.19(SD=0.71)였고, 상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평균 3.94(SD=0.54)였다. 부모 애착표상이 하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평균 4.06(SD=0.50)이었고, 상집단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평균 4.23(SD=0.52)이었다. 기독교대학생의 부모 애착표상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의 t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 애착표상	N	평균	표준편차	t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저	171	3.30	.82	-11.589***
		고	172	4.20	.60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저	171	3.19	.76	-10.890***
		고	172	4.02	.64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저	171	3.27	.76	-10.069***
		고	172	4.02	.61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저	171	3.08	.81	-9.463***
		고	172	3.82	.64	
	가족건강성 전체	저	171	3.19	.71	-10.929***
		고	172	3.94	.54	
신앙성숙도	교리적 측면	저	171	4.52	.55	-2.261**
		고	172	4.65	.52	
	신앙적 측면	저	171	3.87	.58	-2.955**
		고	172	4.06	.61	
	인격적 측면	저	171	3.80	.55	-2.914**
		고	172	3.98	.61	
	신앙성숙도 전체	저	171	4.06	.50	-3.053**
		고	172	4.23	.52	

<표3> 부모 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

기독교대학생의 부모 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 중에서도 가족원간의 유대(M=4.20, SD=.60)

가 가장 높았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M=4.02$, $SD=.64$),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M=4.02$, $SD=.61$), 가족의 가치체계공유($M=3.82$, $SD=.64$)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기독교대학생의 부 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t검증 결과는 $t=-10.929$, $p<.001$ 이고, 하위요인별로는 가족원간의 유대($t=-11.589$, $p<.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t=-10.890$, $p<.001$),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t=-10.069$, $p<.001$), 가족의 가치체계공유($t=-9.463$, $p<.001$) 모두 부 애착표상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대학생의 부 애착표상에 따른 신앙성숙도의 가족건강성의 결과와 같이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가족건강성과 비교했을 때 하집단과 상집단의 점수차가 크지는 않았다. 기독교대학생의 부 애착표상에 따른 신앙성숙도의 t검증 결과는 $t=-3.053$, $p<.01$ 이었다. 신앙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는 교리적 측면($t=-2.261$, $p<.01$), 신앙적 측면($t=-2.955$, $p<.01$), 인격적 측면($t=-2.914$, $p<.01$) 모두 부애착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부 애착표상 정도가 상집단인지 하집단인지 여부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 애착표상 정도가 상인 집단이 하집단보다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모 애착 표상	N	평균	표준편차	t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저	183	3.34	.77	-11.141***
		고	160	4.21	.67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저	183	3.20	.71	-11.625***
		고	160	4.07	.66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저	183	3.31	.71	-9.823***
		고	160	4.04	.67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저	183	3.12	.78	-8.993***
		고	160	3.83	.69	
	가족건강성 전체	저	183	3.23	.68	-10.402***
		고	160	3.95	.60	
신앙성숙도	교리적 측면	저	183	4.52	.58	-2.447**
		고	160	4.66	.48	
	신앙적 측면	저	183	3.89	.61	-2.719**
		고	160	4.06	.58	
	인격적 측면	저	183	3.79	.56	-3.413***
		고	160	4.00	.60	
	신앙성숙도 전체	저	183	4.06	.53	-3.209***
		고	160	4.24	.49	

〈표4〉 모 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

기독교 대학생의 모 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의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모 애착표상이 하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평균 3.23(SD=0.68)였고, 상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평균 3.95(SD=0.60)였다. 기독교대학생의 모 애착표상 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부 애착표상 결과와 같이 가족원간의 유대(M=4.21, SD=.67)가 가장 높았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M=4.07, SD=.66),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M=4.04, SD=.67), 가족의 가치체계공유(M=3.83, SD=.69)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기독교대학생의 모 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t검증 결과는 $t=-10.402$, $p<.001$ 이고, 하위요인별로는 가족원간의 유대($t=-11.141$, $p<.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t=-11.625$, $p<.001$),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t=-9.823$, $p<.001$), 가족의 가치체계공유($t=-8.993$, $p<.001$) 모두 모 애착표상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 애착표상 결과와 같이 기독교대학생의 모 애착표상 정도에 따른 신앙성숙도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가족건강성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하집단과 상집단의 점수차가 크지는 않았다. 모 애착표상이 하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평균 4.06(SD=0.53)이었고, 상집단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평균 4.24(SD=0.49)였다. 기독교대학생의 모 애착표상에 따른 신앙성숙도의 t검증 결과는 $t=-3.209$, $p<.001$ 이었다. 신앙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는 교리적 측면($t=-2.447$, $p<.01$), 신앙적 측면($t=-2.719$, $p<.01$), 인격적 측면($t=-3.413$, $p<.01$) 모두 모 애착표상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 애착표상의 결과와 같이 모 애착표상 정도가 상집단인지 하집단인지 여부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 애착표상 정도가 상인 집단이 하집단보다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모애착표상	N	평균	표준편차	t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저	171	3.25	.79	-13.648***
		고	172	4.25	.5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저	171	3.14	.73	-13.002***
		고	172	4.07	.59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저	171	3.22	.74	-12.260***
		고	172	4.08	.56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저	171	3.03	.79	-11.129***
		고	172	3.87	.61	
	가족건강성 전체	저	171	3.15	.69	-12.853***
		고	172	3.99	.51	
신앙성숙도	교리적 측면	저	171	4.49	.60	-3.214**
		고	172	4.68	.47	
	신앙적 측면	저	171	3.83	.62	-4.539***
		고	172	4.11	.55	
	인격적 측면	저	171	3.76	.57	-4.254***
		고	172	4.02	.57	
	신앙성숙도 전체	저	171	4.02	.54	-4.522***
		고	172	4.27	.47	

〈표5〉 부모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부모애착표상이 하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평균 3.15($SD=0.69$)였고, 상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은 평균 3.99($SD=0.51$)였다. 부모애착표상이 하집단인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평균 4.02($SD=0.54$)였고, 상집단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평균 4.27($SD=0.47$)이었다. 기독교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정도에 따른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의 t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t검증 결과는 $t=-12.853$, $p<.001$ 이고, 하위요인별로는 가족원간의 유대($t=-13.648$, $p<.00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t=-13.002$, $p<.001$),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t=-12.260$, $p<.001$), 가족의 가치체계공유($t=-11.129$, $p<.001$)순으로 모두 부모애착표상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독교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에 따른 신앙성숙도의 t검증 결과는 $t=-4.522$, $p<.001$ 이고, 하위요인별로는 교리적 측면($t=-3.214$, $p<.01$), 신앙적 측면($t=-4.539$, $p<.001$), 인격적 측면($t=-4.254$, $p<.001$) 모두 부모애착표상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 애착표상 정도와 모 애착표상 정도의 결과와 같이 상집단인지 하집단인지 여부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애착표상 정도가 상인 집단이 하집단보다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의 점수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2.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그리고 신앙성숙도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1)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그리고 신앙성숙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부 애착표상	모 애착표상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
부 애착표상	1				
모 애착표상	.548***	1			
부모애착표상	.900***	.858***	1		
가족건강성	.671***	.567***	.707***	1	
신앙성숙도	.177***	.307***	.269***	.337***	1

〈표6〉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 간의 상관관계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그리고 신앙성숙도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제시된 결과를 보면, 모든 변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는 $r=.707(p<.001)$ 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부 애착표상과의 관계가 $r=.671(p<.001)$ 로 모 애착표상($r=.567, p<.001$)보다 더 높은 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애착표상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고,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애착표상이 가족건강성과 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애착표상과 신앙성숙도와의 관계는 $r=.269(p<.001)$ 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애착표상($r=.177, p<.001$)보다 모 애착표상($r=.307, p<.001$)이 신앙성숙도와 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와의 관계는 $r=.337(p<.0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애착표상보다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상관관계가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가족원 간의 유대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의 가치체계 공유	가족건강 전체	교리적 측면	신앙적 측면	인격적 측면	신앙 전체
가족원간의 유대	1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929***	1							
가족원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902***	.894***	1						
가족의 가치체계공유	.890***	.881***	.854***	1					
가족건강전체	.973***	.967***	.955***	.950***	1				
교리적측면	.249***	.240***	.229***	.261***	.248***	1			
신앙적측면	.339***	.344***	.322***	.384***	.368***	.668***	1		
인격적측면	.304***	.306***	.302***	.349***	.321***	.607***	.818***	1	
신앙전체	.316***	.319***	.307***	.357***	.337***	.834***	.932***	.911***	1

〈표7〉 기독교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2)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아버지/어머니)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
신앙성숙도	부 애착 표상	-.090	-.124	-1.798	.135	26.595***
	가족 건강성	.290	.441	6.389***		

* 다중 공선성 진단: 공차한계 .533(기준치>.10), VIF 1.876

* p<.05,** p<.01, *** p<.001

〈표8〉 부 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표8〉은 기독교 대학생의 아버지의 애착표상정도와 가족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부 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은 신앙성숙도에 대해 13.5%(F=26.595, p<.001)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으로 보면, 가족건강성(t=6.389, p<.001)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
신앙성숙도	모 애착 표상	.128	.149	2.398*	.142	28.036***
	가족 건강성	.177	.269	4.324***		

* 다중 공선성 진단: 공차한계 .679(기준치>.10), VIF 1.473

* p<.05,** p<.01, *** p<.001

〈표9〉 모 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대학생의 어머니의 애착표상정도와 가족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t=4.324, p<.001), 모애착(t=2.398, p<.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이 신앙성숙도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14.2%(F=28.036, p<.001)로 나타났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
신앙성숙도	부모애착 표상	.019	.021	.289	.127	24.791***
	가족 건강성	.224	.341	4.627***		

* 다중 공선성 진단: 공차한계 .500(기준치>.10), VIF 2.001

* p<.05,** p<.01, *** p<.001

〈표10〉 부모 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은 신앙성숙도에 대해 12.7%(F=24.791, p<.001)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으로 보면, 기독교 대학생의 가족건강성(t=4.627, p<.001)만이 신앙성숙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은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이 신앙성숙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건강성이 어떻게 매개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의 애착표상정도가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다음의 <표11>에 제시하였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제곱	F
		B	표준오차	베타			
부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상수)	0.936	0.158		5.918	.462	298.878***
	부애착표상	0.755	0.044	0.683	17.288***		
부애착표상→ 신앙성숙도	(상수)	3.689	0.140		26.293	.031	11.081***
	부애착표상	0.129	0.039	0.177	3.329***		
부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	(상수)	3.417	0.139		24.510	.135	26.595*
	부애착표상	-0.090	0.050	-0.124	-1.798		
	가족건강성	0.290	0.045	0.441	6.389***		

<표11> 부 애착표상이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모의 애착표상정도가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다음의 <표12>에 제시하였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제곱	F
		B	표준오차	베타			
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상수)	0.604	0.227		2.664	.346	180.70
	모애착표상	0.770	0.057	0.589	13.443***		
모애착표상→ 신앙성숙도	(상수)	3.112	.176		17.718	.094	35.529***
	모애착표상	.265	.044	.307	5.961***		
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	(상수)	3.005	0.173		17.368	.142	28.036*
	모애착표상	0.128	0.054	0.149	2.398*		
	가족건강성	0.177	0.041	0.269	4.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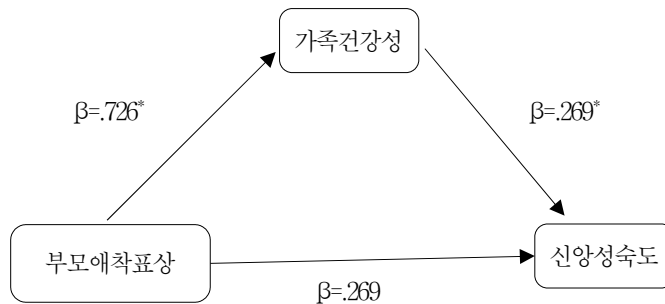
<표12> 모 애착표상이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표상이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다음의 <표13>에 제시하였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R 제곱	F
		B	표준오차	베타			
부모애착표상→	(상수)	.936	.191		-.367	.527	380.50***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	.755	.051	.726	17.288***		
부모애착표상→	(상수)	3.248	.176		18.421	.072	26.583***
신앙성숙도	신앙성숙도	.241	.047	.269	5.156***		
부모애착표상	(상수)	3.005	.173		17.368	.142	28.036***
가족건강성	부모애착표상	.128	.054	.149	2.398		
→신앙성숙도	가족건강성	.177	.041	.269	4.324***		

〈표13〉 부모애착표상이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를 살펴보면,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은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영향($\beta=.726$, $p<.001$)을 미치며 가족건강성을 52.7% 설명하였다. 이는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 정도는 신앙성숙도에 유의한 영향($\beta=.269$, $p<.001$)을 미치며 신앙성숙도를 7.2% 설명하였다. 이는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이 높을수록 신앙성숙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부모애착표상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부모애착표상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기독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신앙성숙도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이 완전 매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완전 매개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부모애착표상과 신앙성숙도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기독교 대학 2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 343명을 대상으로 부모애착표상, 가족건강성, 신앙성숙도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무 애착표상, 모 애착표상, 부모애착표상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애착표상 정도에 있어 상집단인지 하집단인지 여부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모애착표상이 상인 집단이 하집단보다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앙성숙이 부모와의 애착과 긍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운영, 2015)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는 자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과 부모의 애착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가정안에서의 가족관계의 출발점은 언약적 서약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언약은 안전을 가져다주며 안전으로부터 사랑은 은혜로 나아가고 이 은혜의 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갖으며 성숙하게 되므로(Balswick & Balswick, 1989) 기독교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신앙 성숙도에 있어 부모애착 표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은 종족보존이나 이해와 사랑과 교제를 제공하는 장소는 물론 더 나아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전인적인 삶 즉, 신앙적 성숙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은 신앙성숙도, 이 세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애착과 가족건강성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승진·이인수, 2015)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위요인 중 아버지와의 애착이 어머니와의 애착보다 가족건강성에 더 관련이 있게 나타나 가족건강성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애착표상과 신앙성숙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이 좋다고 밝힌 선행연구(임영민, 2011)를 지지한다. 하위요인에선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

버지와의 애착보다 신앙성숙도와 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족건강성과는 달리 신앙성숙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코메니우스도 어머니의 무릎이 최초의 가장 중요한 학교라 하여 갓 태어난 신생아를 새신자로 바쳐야하며 어머니는 자녀의 신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먼저 돌보아야하며,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도록하며, 도덕과 교양을 가르칠 잘 절제된 훈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느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자녀에게 건전한 신앙심과 건전한 인격을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간의 상관관계가 부모애착표상과 신앙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건강성과 신앙인격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김난예,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가족건강성과 신앙성숙도의 높은 상관관계는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며 성장 뿐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린다. 특히 건강한 가정은 공통된 신념을 가지고, 대화를 자주하고, 서로 인정하고 지지해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를 실시하는 가정(연문희, 1994)으로 필요하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열린 가정으로 신앙과 도덕심 함양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위한 기초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집을 세워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이 신앙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매개로 결합될 경우 부모애착표상이 신앙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의 정도가 신앙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하여 신앙성숙도가 높아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신앙적 성숙과의 관련성을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 그리고 가족건강성이 부모애착보다 신앙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크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은 신앙성숙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성숙을 위해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동기에 부모와의 애착을 잘 형

성하면 가족건강성의 수준도 높아지고, 신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앙성숙도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서울지역에 소재한 2곳의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로 선정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표집 할 뿐 아니라 신앙성숙도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은 신앙성숙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의 형제서열, 부모의 종교, 교육정도 등의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 및 신앙성숙도에 대한 추론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의 이와 같은 변인들과 함께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더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신앙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과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기독교적인 부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 되어야 하며, 이를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곽소현 (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 모델 분석-문제군과 일반군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경희 (2015). “기독교대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신앙성숙도에 관한 통합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난예 (2012). “건강가족성과 자녀의 신앙인격 특성.” 『기독교교육논총』, 29, 207-236.
- 김리진 · 황현주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부모애착과 영아에 대한 아버지애착의 관계: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학회지』, 18(4), 55-73.
- 김유경 (2013). “기독교 유아교사의 신앙성숙도와 빈곤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김은실 (2005). “어머니의 신앙성숙도와 유아의 하나님 표상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김정원 · 강희신 · 최소린 (2013). “부모애착표상과 가족건강성이 예비영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IV), 488-502.
- 김진원 · 엄명용 (2014). “가족식사활동이 기혼여성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4(6), 81-111.
- 박미희 (2013). “다문화가족 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박선영 (2015). “혼인, 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17, 463-500.
- 송인숙 · 홍달아기 · 박현성 (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79-598.
- 원찬중 (2007). “역기능 가정의 가족관계와 신앙생활의 상관성.”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성인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73-180.
- 유영주 (1994).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05-218.
- 유영주 · 어은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I), 145-156.
- 유영주 · 이인수 · 김순기 · 홍성례 · 최희진 (2009). 『건강가족의 이해』. 서울: 교문사.
- 윤연정 (2007).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

- 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이문경 (2014). “유아기 부모애착이 하나님 표상과 하나님 애착에 미치는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승진 (2010). “부모애착, 부모문제음주가 자녀 음주에 미치는 영향-원가족 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승진 · 이인수 (2015). “부모애착과 자녀 문제음주와의 관계에서 원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3(1). 273-289.
- 이정미 (2015). “부모의 애착표상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혜주 (2015).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신앙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임경수 (2013). 『인간관계심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임영민 (2011). “부모애착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장휘숙 (2004). “애착과 애착의 발달.”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15(1). 16-27.
- 전요섭 · 배은주 (2005).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복음과 상담』. 5. 321-346.
- 정명자 (2002).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아버지 역할.” 『광신논단』. 11. 421-452.
- 정옥분 · 황현주 · 정순화 (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조순옥 · 이경화 · 배인자 · 이경숙 · 김정원 · 민해영 (2013). 『유아사회교육』. 서울: 창지사.
- 조아라 (2008).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조윤영 (2015). “부모애착에 의한 하나님 이미지가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독교 교육적 연구-신앙성숙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조은수 (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통계청 (2016). 2015년 혼인 이혼 통계.
- 한영숙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함영주 (2013). “어린이의 하나님 개념 형성에 있어서 아동기 애착관계의 역할과 기독교 교육학적 함의.” 『성경과 신학』. 65. 329-353.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Colson, H. P., & Rigdon, R. M. (1981). *Understanding Your Church's Curriculum*. Nashville: Broadman Press.

Fonagy, P., Steel, H., & Steel,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2. 891-905.

Jacko, Balswick., & Judith, Balswick (1989).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Abstract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Family Strength on the Faith Maturity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Yoon-Kyung Kwak (Chonshin University)

Mi-Kyung Kim (Chon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 is influenced to family strength and faith maturity.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359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 the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SPSS 18.0.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the participants was found to contribute t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family strength and faith maturity. Second, a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among the students'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 family strength, and faith maturity. Third,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family strength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faith maturity. Fourth,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 was found to have a full mediation effect on faith maturity, with family strength as the mediator. The results reveal that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and the strength of their family play an important role in,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faith maturity. This indicates that for Christian families, strengthening family ties is important to promote the children's faith maturity.

Key Words: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 family strength, faith maturity